

7년된 '스포츠 보물' 떡갈나무



인터우내 호브트 블러브와 12가 인근에는 대형 떡갈나무가 걸보기에 한 한그루의 큰 나무로만 비쳐 지고 있으나 알고보니 71년 된 스포츠계의 보물 드러나 이를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이 나무는 1936년 독일 물린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 육상선수인 코넬리우스 존슨이 금메달과 함께 물로 받은 목욕을 자신의 집에 심어 이같이 자란 것이다. <전한 기자>

룸살롱 때문에...

20대 동거녀 때린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룸살롱에 가지말라"고 박씨에게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40대 한인남성 체포

쌍둥이 태아 'SOS' 인술이 살렸다

쌍둥이 태아를 임신한 본국 여성이 '쌍태아 수혈 증후군(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에 걸려 본국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에 도착해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쾌돼 회자다.

그 주인공은 한국 구리시에 살고 있는 이남진(31) 박선의(30) 부부.

이들은 결혼 4년만에 소중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쌍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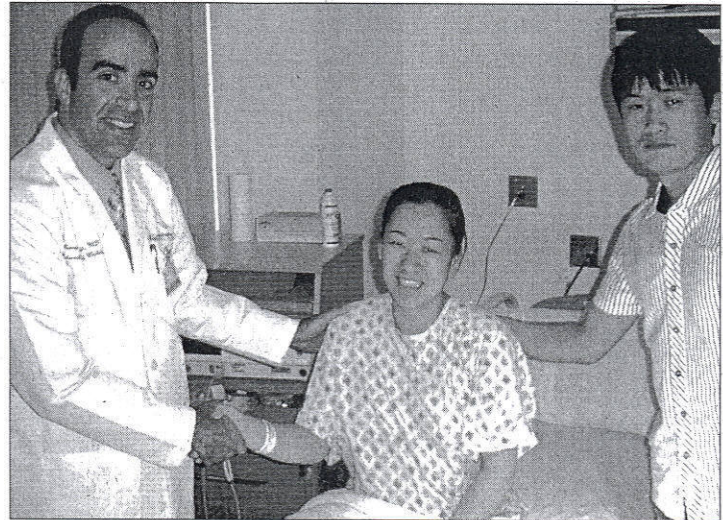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임신 2주 차인 지난 13일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산모가 '쌍태아 수혈 증후군(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이병은 저급속 쌍둥이가 영양분과 피를 공평하게 받지 못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

일란성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 10명중 1명 꼴로 걸리는 병으로 한국의 경우 이 병에 걸리면 마땅한 수술장비나 의료시설이 없어 사실상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릴 경우 대부분의 임신부는 태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하고, 설령 모두 태어나도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은 정도로 절망적인 병이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병



19일 '쌍태아 수혈 증후군'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박선씨와 남편 이남진 씨가 퇴원수속에 앞서 수술을 집도했던 슈미트 박사(맨 왼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희귀 질환 '수혈증후군' 걸린 본국 임신부

할리우드 장로병원서 수술받고 완쾌 귀국

원들을 수소문 한 이들 부부는 한국의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세계적 권위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들은 차병원과 할리우드 장로병원의 도움으로 하루만에 비자를 발급받아 18일 미국에 도착, 바로 다음날인 19일 오전 수

술을 받고 겨우 쌍둥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산모 박씨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수술이 잘돼서 지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며 "주변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미국에서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다"며 병원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할리우드 병원의 슈미트 박사는 "모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며 "이들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태아에 문제가 없는 만큼 순산할때 까지 이메일 등으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열 기자

ryan@koreadaily.com